

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36, 학개, 스가랴, 말라기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Boker Tov도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훌륭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기말고사 시점에 답변해야 할 질문이 있나요? 그 내용 외에는. 응, 수잔나.

물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옛날 시험 공부만 잘 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유배 이후의 역사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이름들, 주요 인물들, 그리고 유배 이후의 선지자들에 관해서는 음,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이전 시험 이후로 우리가 했던 모든 예언은 그 복습 시트를 사용하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을 빈칸에 채우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좋은 검토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Carrie가 강좌 평가를 할 예정이므로 10시에서 10시 사이에 수업을 중단하여 여러분에게 20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나는 매년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기록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서면 의견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숫자 점수는 재미있습니다. 즉, 모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제가 실제로 보는 것, 아마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 주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하도록 이끌렸다고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는 잠시 시편 낭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세 곡을 골랐는데,

그중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곡이 최소한 한두 곡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 한 학기 동안 우리를 함께 모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과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에 압박이 심한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은사가 참으로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격려와 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이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깊이 활동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여름에 각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와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를 당신 가까이에 두십시오.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마음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한 당신의 진리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의 어려운 곳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운 문화에 그 진리를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빛이 그 장소로 들어오기를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마지막 세 선지자를 선택해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문제를 약 35분 안에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선지자가 들어갈 역사적 맥락에 관해 지난 시간부터 복습하는 것뿐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들 각각은 사원에 약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특히 학개와 스가랴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 문제를 살펴볼 다양한 렌즈에 대해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말라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견해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우선 사진 몇장.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이것을 전에 본 것 같아요.

이것은 실제로 사원 지역의 모델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 지역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개, 특히 스가랴가 필요에 따라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날에 완료되고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점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예언의 기초가 되는 내용과 예수께서 오실 성전을 미리 내다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델은 결코 오래된 모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고학자들의 작업과 역사적 자료, 특히 유대 자료, 특히 성전의 치수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미슈나(Mishna)라는 텍스트를 살펴본 사람들의 작업에 매우 신중하게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델을 보고 플랫폼 전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성전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쪽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왕의 주랑입니다. 볼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주랑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서,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러한 맥락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백업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신약성서에서 했던 일이므로 여러분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이스라엘에 다시 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나의 작은 놀림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연대순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 다윗성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그 성은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히스기야에 관해 이야기할 때 도시의 확장이 실제로는 이 사진에서 벗어나 여기 지역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여러분이 읽었던 성벽 공사를 시작했을 때, 오늘의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그 성은 다시 쪼그라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 작은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전 산은 그들이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레베카, 계속하자.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과 같은 성전이군요, 그렇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다리우스 시대의 성전은 완성되었으며 동일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하지만 516년에 완공된 후 서기 70년에 멸망될 때까지 헤롯 대왕이 와서 이곳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세 번째 사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마도 주위에 따옴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좋아요, 계속할 준비가 되셨나요? 감독자.

먼저 역사적 맥락에 대한 검토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지난번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 선지자들의 사역이 어디에 적합할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관참은.

그래서 우리는 539년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 이야기했고, 에스라서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전에서 즐거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를 쌓고, 제단을 다시 쌓고, 절기를 지키지만, 그러자 반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략 539에서 520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다리우스, 다리우스 1세 시대에 우리는 실제로 이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책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만약 그가 서쪽과 남쪽, 특히 이집트로 확장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그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그의 전선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장려하여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1세 통치 기간이군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 핵심 인물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것들에 대해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아침에 들을 수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물론 학개와 스가랴가 핵심 예언의 목소리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후 먼저 학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한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0년이라는 좋은 시간을 보냈고 여기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65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라가 처음 올 때에는 465년경으로 보이지만,

연대측정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450년경이 되어서야 개혁 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에스더 이야기 전체가 여기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오른쪽 ? 왜냐하면 바로 여기 빈 공간에 에스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480년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세 명의 선지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학개(Haggai)가 첫 번째, 혹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말하고 싶다면 학개(Haggai)입니다.

학개라고 해보자. 그는 놀랍도록 현대적인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세요.

4절, 1장. 이제 여러분 자신이 판넬집에서 생활할 때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집, 즉 성전, 내 집은 여전히 폐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것이 놀랍도록 현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봉사하느라 바쁩니다. 우리는 원하는 옷을 모두 사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에 대한 담보 대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과 왕국의 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 자신의 현대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개는 단지 2,500년 전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길을 신중히 생각하라. 너희는 많이 심었지만 수확한 것은 적다. 당신은 먹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언약적 입장을 마땅히 다루어야 할 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 결과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시 너희 길을 삼가라(7절). 산에 올라가서 재목을 베어 이 집을 건축하여 내가 기뻐하게 하라.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학개가 그들에게 촉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가 다음으로 말해야 할 것은, 이것은 실제로 2장의 중간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잠시 후에 2장의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사원 직원들에게 약간의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2장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다시 기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제사장에게 물어 보십시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넣고 그 접힌 부분이 다른 것에 닿으면 거룩함이 옮겨지나요? 테스트입니다. 그들은 죄의 전염성과 거룩함의 전달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원칙을 알고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반면, 다음 질문은 사제들이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이 이런 것 중 하나를 만지면 그 자체도 부정해지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개는 제가 여기서 방금 언급한 보다 엄격한 교훈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과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바치는 것은 모두 더럽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정결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교훈이 바로 2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몇 가지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2장의 중앙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정신이 강조된다. 2장 2절,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기억하세요, 그는 왕의 계열, 왕의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 집의 옛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즉,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작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한다.

내 영은 너희 가운데 남아 있다.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돕는 영들의 개념 전체가 스가랴서에서 정말 심오하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여기 스가랴서에서 학개를 통해 내 영이 이 그림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아, 내 영혼은 너희 가운데 남아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아모스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리라.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 절에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

만국의 염원은 단순히 재물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애야, 헤롯의 성전에는 엄청난 사치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일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소망이 누가 올 것인지에 관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집을 내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9절에 보면, 이 전의 영광이 이전 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비록 저희에게는 이 전이 작아 보이느니라.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실 것이라는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마지막으로,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스룹바벨에게도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므로 너를 내 손가락에 인장 반지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로 넘어가면서 스룹바벨의 인물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학개입니다. 알았어요? 특히 소선지서가 모두 뒤죽박죽된 경우 각 소선지서의 주요 문제와 관련하여 작업해야 할 모든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학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학개의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세요. 좋아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좀 더 알아보는 스가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는 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일부 장기적인 일에 더 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측합니까? 스가랴는 묵시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의 첫 번째 부분은 환상입니다.

좋아, 종말론적인 환상.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모두 현재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의 전망, 그리고 주변 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입니다. 묵시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묵시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알게되었습니다.

일차적인 특징은 상황이 매우 암울하기 때문에 선이 승리할 때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나타나는 특정 시점에. 또 뭐야? 환상적인 이미지, 올바른 상징적 비전.

환상, 꿈, 상징, 상징적 숫자 – 여러분은 스가랴서의 처음 여섯 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목자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라는 상당한 양의 묵시적인 자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비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지금은 처음 6개 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썄, 5장 반. 오늘 그것들을 읽으면서, 그것들이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과 기병에 의해 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뭔가를 말할 것입니다. 좋아요, 거기에는 틀이 있고, 그것은 곧 펼쳐질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들로 다시 돌아가서 비전을 통해 우리의 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구조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 틀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예시합니다. 이 중간 환상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몇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원과 사원과 관련된 인원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그 안에서 기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건하는 것과 관련된 인력.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3장과 4장에서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제대로 기능하는 신권을 갖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토라(Torah)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중보를 이루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러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성전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인 비전 전체에는 좋은 질서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것은 좋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중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지만 특히 3장과 4장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직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4명의 기병이 순찰 중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예시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의 틀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명의 말탄 자들이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뿔도 있어요. 그리고 뿔은 나쁜 힘입니다. 본문은 1장 19절을 말합니다 .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어지게 한 뿔들이다. 하지만 그 뿔을 던져서 없애버릴 사람은 장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 외세들이 예루살렘을 손상시켰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료 세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마을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측정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아, 끔찍하다.

예루살렘이 측량한 네 뿔과 장인 뒤에 작은 음표를 새기라. 알겠습니다. 그거 놓쳤어요. 그게 2장이에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 특정 시점을 측량할 뿐 아니라(2장 5절), 내가 친히 그 주위에 불성곽이 되고 그 안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인 약속을 하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장 10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간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겠다' 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날에는 많은 나라가 주 안에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용서하세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부분은 3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돌보아야 하고 성전 직원들이 기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조슈아 또는 조슈아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거기 누구야? 응, 고소인.

하 사탄은 히브리어로 고소인을 의미합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관참은.

사탄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느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꾸짖으십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불타는 막대기가 아니냐? 3절.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대제사장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제사장은 이 자색 옷과 에봇과 흉패와 주교관과 같은 모든 놀라운 예복을 입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상에서 그는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나요? 레베카? 좋아요, 그것은 그의 내면의 죄를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글썄, 우리는 그것을 더욱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첼시?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대표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는 분명히 자신에게 본질적인 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더욱 더 밀어붙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조슈아가 기대하고 있다면, 본문에 있는 이유 때문에 이 조슈아가 어떤 식으로든 기대하고 있다면 이 더러운 옷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그 자신의 내적 불완전성과 죄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 죄의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과 깨끗한 관을 입히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네 동료들이여, 들으라. 그들은 장래 일의 상징인 사람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단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한 맥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가올 일의 상징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 다음 계속됩니다. 보라, 나는 내 종 곧 가지를 데려오겠다.

자,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가지라는 용어가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은 그 돌 하나에 일곱 눈이 있으니 내가 그 돌에 글을 새기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신실할 때 주신 약속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장기적으로 연관될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시점 에서, 여러분의 컴퓨터나 다른 곳에 성경이 있다면, 6장으로 건너뛰십시오. 제가 여기에 언급한 부분입니다 . 같은 주제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6장 11절. 은과 금을 가져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대제사장의 머리에 왕관. 그에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여기 가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 그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위엄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자기 왕좌에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화목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잠시 동안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제사장인 한 사람과 왕의 계통을 대표하는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할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상징하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방금 3장에서 살펴본 것과 함께 그것을 감아 놓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에서 보는 것에 대한 온갖 종류의 추측이 있습니다. . 그게 말이 되나요? 알았어, 좋아.

다음 비전. 이 책도 그만큼 흥미롭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의 조슈아 맞죠? 그러나 여기 스룹바벨의 경우에는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물론 스가라는 꼭대기에 견고한 금 등잔대와 그 위에 일곱 등불이 있고 등불이 일곱 개 있고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심오한 개입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말하길,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물론 스가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6절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짧은 노래를 부르며 자랐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부른 노래의 일부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르는 말씀이니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주 작은 커뮤니티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위되어 반대자들과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 영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학개서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온 땅에 두루 감람나무와 감람가지와 감람나무가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주님의 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응, 크리스틴? 감람대와 감람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요약하는 것은 모두 4장입니다.

아마 너한테 그걸 줬어야 했는데. 4장 14절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아 온 땅의 주를 섬기게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두 직무가 함께 모이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신약에서 다루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계속해야 합니다. 슬프지 않나요? 월슨 박사의 수업을 들어보세요.

케일린, 그게 질문인가요? 알았어, 알았어. 성전과 성전 직원에 대해 이야기한 후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5장에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우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건 그렇고, 몇 년 전 그것을 날아다니는 양탄자라고 불렀던 제 학생처럼 되지 마세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거기에는 저주의 글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곧 언약의 저주들이니라.

그러나 악의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들과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자들의 집에 들어갈 것이라 그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이지요. 언약의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언약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 바구니.

납 덮개가 있는 바구니, 납이 무거움. 바구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매혹적인 비전입니다. 응, 친구.

예, 그것은 흥미롭게도 악을 대표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즉, 악은 이 납 은폐를 밀어붙일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다른 두 여자가 와서 바구니를 잡고 악을 제거합니다. 사실, 흥미롭게도 그들은 그것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괜찮은.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모든 악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다소 극적인 측면에서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악의 바구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측면에서 첫 번째 부분인 6장이 전차입니다. 네 대의 병거, 기병, 그리고 다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이미지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6장은 묵시록의 고전적인 네 명의 말탄 자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바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스가랴서에서 바로 나옵니다.

자, 그것은 묵시적인 비전입니다. 이제 책의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응, 케일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아시다시피, 그 특별한 설명이 뭔가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 문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3장 문제와 연결합니다. 즉,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은 다가올 일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함께 오는 것을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신약성경에서 그 인물에 대해 읽었던 것입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에는 왕이자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명되었지만 그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시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환상적 종말론적 경험은 아니지만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진술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좋아요. 응, 맞아.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스가랴가 말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7장과 8장. 훌륭한 설교 자료입니다. 훌륭한 설교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살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우리 모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두 장의 강력한 권고 중 하나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도 마찬가지지만 진실의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주변 나라들 중 일부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몇 가지 주요 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스글론, 아스돗, 가자. 블레셋 도시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주변 나라들에게 연설할 것입니다. 11장에서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왕을 대표하는 목자와 목자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Matthew도 그 점을 활용할 것입니다. 11장에 나오는 이미지와 11장에 나오는 본문은 수난 주간 동안 예수 생애의 마지막 사건과 관련하여 복음서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 즉 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많은 것들이 언급되었지만 중요한 세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와 함께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그 안에 사람의 영을 지으신 이시니라. 좋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무엇인가 만들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감격의 잔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며, 그것은 우주의 주권적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점은 다윗의 집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사 그 중에 가장 약한 자로 다윗과 같게 하시며 다윗의 족속으로 이를 예비하신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치 그들 앞서 가는 주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그리고는 더 강한 말씀으로 이어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찢은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건 신이 말하는 거야, 알았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애통하라.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복음 이야기와 그 너머에서 포착되는 환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즉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미 두 가지를 해냈습니다.

14장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는 일과 격변적인 마지막 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장 4절에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을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에 가실 분들이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감람산이 무덤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수세기, 수세기, 수세기의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곳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본문이 그분이 감람산에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바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장사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지하 터널을 뚫고 올리브 산에 도달하게 된다는 놀라운 랍비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랍비 전설이군요.

관찰은. 우리는 스가랴서와 복음서에 관한 간략한 참고 자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복음서 작가들 모두가 수난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스가랴 자료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매혹적입니다.

자, 정말 빠르게, 강의 개요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9장에 보면 스가랴가 이르되 시온 딸아 즐거워할지어다 네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리고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종려주일이라는 관점에서 선택되었습니다.

9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계속해서 읽으면 바로 다음 구절에서 평안히 오는 것과 이 사람이 평강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쯤 지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전쟁과 전투의 때가 될

그분의 재림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유다가 은화 30년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스가랴서에서 바로 나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다루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약성서에서 그 내용을 다루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는 방금 그들이 찢은 그분을 바라보며 이 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의 언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체포로 인해 공포에 질려 흩어졌을 때, 마태는 특별히 스가랴의 말을 인용하여 이 일이 예언된 대로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지게 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예언적 언급은 예수님과 수난 주간과 관련하여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를 할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준비가 된? 스프린트 신발을 신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름은 나의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말라 크는 메신저이다. 끝에 e를 추가하면 내 메신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제로 사람이 없고 단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몇 가지 메신저 테마가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 시대에 여기서의 실제 메시지는 메신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세대에 걸친 부흥과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글썄요, 교회는 점점 안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족하게 됩니다. 이 맥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이 사람들에게 도전, 즉 하나님의 도전을 제시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담하게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아, 그래'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좀 더 능숙하게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맥상 학개의 시대에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그들은 희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경멸합니다. 말라기는 당신의 고용주, 상사, 총독에게 형편없고 추악한 희생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이 그분께 바치는 희생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전체에는 그들의 안일함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 부족에 대응하는 일련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장. 그건 그렇고, 이것은 당신의 노트에 없습니다. 그랬어야 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다시 말하지만,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리라. 마가복음은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할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이사야 40장과 함께 엮을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내 백성아,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나 그는 말라기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엘리야를 보내는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서 4절과 5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즉 예언 부분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준비됐나요? 내 종 모세의 법 곧 호렙산에서 내가 그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것은 우리가 토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언적 목소리에 관한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언급입니다.

모세의 율법 곧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다음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받은 예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참으로 선두주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가 세례 요한에 관해 이야기할 때 3장 1절을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하십시오. 누가는 다음 부분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후에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헤렘 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 herem 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 파괴에 바쳐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헤리. NIV는 그것을 저주로 땅을 치라고 번역합니다.

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언약의 맥락에서 말라기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내 말은, 대담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느니라

나는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헤세드 밖에 있다는 뜻이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와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세드, 즉 실패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과 대조됩니다.

에돔은 그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오 라는 단어 가 딱 들어맞는 곳입니다. 글썄요, 아마도 그다지 행복한 결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돌아가서 엘리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물론 복음서의 전체 파노라마는 엘리야를 선두주자로 펼쳐집니다.

좀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알았어, 짐 좀 싸줄래? 캐리, 와서 가져가면 돼...